

[P4-23]

농촌주민 65세 전후 연령구분에 따른 식생활과 건강관리상태의 비교

정금주, 조영숙, 이승교

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,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

농촌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. 실제 농촌거주자의 농업종사여부를 불문하고 현재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리 상태 및 식생활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을 자주 말하고 있다. 농촌주민은 건강과 식생활의 자연친화적 환경에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과도한 농업 노동과 농약사용 등,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의 세계화 경향에 따라서 농업종사자의 정신적 피로가 가중되어 피로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처해 있다. 이에 따라 식생활과 건강관리의 개념을 도입, 농촌주민의 식생활행동과 당면한 건강 문제를 바로 알고 건강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, 65세를 전후로 나누어 농촌주민의 식생활과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. 농촌을 행정구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층화추출법으로 1870명을 선발하였다. 조사는 조사지를 이용한 질문지법으로서, 시군단위 조사원을 선발하고 교육을 통하여 본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알게 하였으며 조사원이 질문에 답을 듣고 기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. 통계는 전체 결과의 빈도와 %를 나타내었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χ^2 값을 구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. 대상자의 연령과 학력을 보면 남편의 경우 65세 이상군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이며 65세 미만군에서는 고등학교 중퇴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. 부인의 학력은 남편에 비하여 3-4년 낮은 수준을 보였다. 식생활 현황은 아침식사에 차이가 있어 65세 이상군에서 아침을 꼭 먹는 비율이 높았으나 반찬수는 65세 미만군이 좀 더 다양한 반찬을 섭취하고 있었다. 인스턴트식품, 간식, 외식 비율은 65세 미만군에서 훨씬 많았다. 전통식품의 이용빈도는 고연령군보다 오히려 65세 미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금기식품은 80%가 없다고 하였으며 연령군 별로 차이가 없었다. 또한 65세 이상군에서 질환자의 수가 많았으며 특히 남편이 아픈 경우가 유의적으로 많았다. 건강검진 빈도를 점수화하여 비교하면 3-4년에 한번 진단을 받고 있었으며 목욕 음주 흡연점수를 비교하여 볼 때, 목욕은 남편보다 부인이 더 자주하고 남녀 공히 65세 미만군에서 더 나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, 흡연정도는 65세 이상군에서는 남자가 더 흡연하는 경향이지만 65세 미만군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흡연 점수로 나왔다. 그러나 오차가 큼으로서 여성의 경우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. 농부중 발현을 보면 65세 이상군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높은 발현빈도를 보였으며 남편보다는 부인에게서 더 많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. 농부중의 치료를 위하여 병의원에 가는 경우는 37%에 불과하였다. 그밖에 지압이나 양약 한방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고 참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었다. 농기계사고의 빈도는 5%이었으며 기계 중 경운기가 3.5%로 가장 많았다. 농약중독 경험은 약 5%가 있다고 하였고 65세 이상군에서는 부인의 농약중독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. 농약중독시에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지압5% 휴식3.5% 양약 1.4% 등 매우 미약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었다. 21세기 복지국가로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비하여 농촌주민의 건강상태가 열악함을 볼 때 농촌지역의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고히 하고 관련 기관과 국가에서의 영양교육과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.